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최 태 진*

부모 자녀간의 애착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위한 주요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유아기 이후 형성된 부모 자녀간 애착이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도식으로 기능한다는 ‘내적 작동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경험적 연구는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내적 작동모델로서의 애착요인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기제로 ‘문화적 작동모델’로서 개인수준의 문화성향 요인(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 요인)을 제안함으로써, 문화성향과 애착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들 두 요인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검사,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척도, 학교적응과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상관 및 교차분석을 통하여 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2)애착수준(3)×문화성향(4)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통하여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 성향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으나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성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자일수록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애착 및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의 두 요인 모두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은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가 학교적응 및 정신건강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시사점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교생활 적응, 정신건강, 부모 애착, 개인주의-집단주의

* 부산대학교 강사, 교육학

I. 서 론

생애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Bowlby(1982, 1988)의 애착모델은 비단 유아기나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장과정 전체에 걸쳐 개인의 적응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보고식 애착척도(예, Armsden & Greenberg, 1987; Bartholomew & Horowitz, 1991; Kenny, 1987)가 개발되면서 보다 많은 연구에서 경험적 증거가 축적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간의 애착은 자녀의 정체감 형성(정정숙, 1994; Quintana & Lapsley, 1987), 사회적 유능감(Rice, Cuningham, & Young, 1997), 자아존중감(장희숙, 1997; Rice & Cummins, 1996)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적응에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애착은 학교생활 적응(유은희, 1991; 이은경, 1992; 이희영·최태진, 2004; 지수경, 2001; 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 Lapsley & Edgerton, 2002),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의 정신건강(김수진, 2000; 주현정, 2001; 최정욱, 2000; 허나원, 2001; Kobak & Sceery, 1988; Torquati & Vazsonyi, 1999)에도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발달·적응상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부모 애착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보다 최근의 후속 연구들은 애착과 관련하여 논쟁점으로 남아있던 몇 가지 과제들에 보다 초점을 두고있다. 애착에서의 성차(조수진, 1999; Kalsner & Pistole, 2003; Palladino & Blustein, 1994; Rice & Whaley, 1994)나, 애착이 지니는 적응기체로서의 문화간 차이(이희영·최태진, 2004; 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 중 이희영과 최태진(2004)의 연구는 성차와 함께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탐색한 국내의 가장 최근 연구에 속한다. 본 연

구는 이희영과 최태진(2004)의 연구 등 선행연구가 지녔던 몇 가지 제한점에 주목하면서,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기제로써 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 및 이희영과 최태진(2004)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이나마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문화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지각, 인식, 사고, 행동 차이를 문화적 성향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틀이 이들 문화간 차이를 이해하려는 대표적인 차원이다(Hui, 1988; Markus & Kitayama, 1991, 1994; Triandis, 1989;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이 관점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로 대별할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는 자율성, 독립심, 개인의 목표와 신념 중시, 개인적 만족의 추구, 집단의 결속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정서적인 거리감 등(Hui, 1988; Schwartz, 1994; Triandis et. al., 1988)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이며, 집단주의 문화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대한 깊은 관심, 집단의 정체감에 동화된 사회적·개인적 정체감의 형성,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 건전한 대인관계, 가족의 안녕,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등(Hofstede, 1991; Hue & Triandis, 1986; Triandis, 1989; Triandis et. al., 1988)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은 초기에 동·서양과 같이 문화수준(cultural level)에서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근래에 이르러 동일한 한 문화권내 사람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개인차를 이해하려는 개인수준(individual level)에서의 틀로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Triandis et. al., 1985, 1988).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권(Hofstede, 1991)에 속하며, 역시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는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요인에 대한 이러한 관점하에, 이희영과 최태진(2004)의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희영과 최태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 형태를 유형화(불안정 애착형과 안정애착형)하고, 문화적 성향을 구분하여(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로 구분) 대학생 활적응(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애착유형과 문화적 성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호작용의 효과가 개입될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동일한 안정애착 유형을 지니더라도 집단주의 성향자가 개인주의 성향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적응점수를 나타내었을 뿐이었다. 여기에서 전술한 문화적 요인에 대한 관점과 이희영과 최태진(2004)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이 문화적 요인(각 개인이 지니는 문화적 성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직접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부모애착은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강한 유대적 관계이다(Ainsworth., 1989; Bowlby, 1982). 이는 집단주의 문화 혹은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는 여러 특성들 즉,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하는 성향, 일체감, 상호의존성 등과 동일한 맥락이다. 몇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 의식을 ‘가족형 집단의식’(김성태, 1987; 최상진, 1993; Cha, 1990)으로 표현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는 오히려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박영신·김의철, 2002: 343)고 지적하고 있음도 애착과 문화적 성향간의 상호관계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애착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높은 집단주의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혹은 역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애착수준이 높을 것이 기대된다).

둘째, 동시에 애착요인과 적응과의 관련연구에서 문화적 요인은 애착과

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이희영·최태진, 2004; 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의 경우, 개인의 발달적·적응적 측면과 관련하여 문화적 요인 그 자체를 독립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애착이라는 요인이 문화에 따라 적응기제로써의 역할을 달리하느냐하는 매개역할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적 요인은 애착요인과 구별하여 그 자체로써 하나의 독립적인 적응 관련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두 가지 근거에서 진술될 수 있다. 우선 애착이라는 요인이 적응기제로써 작용한다는 것은 영·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되어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맥락과 현상을 이해하는 해석적 도식으로 작용한다(Bowlby, 1980, 1982)는 논리에서이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성향 요인 역시 한 개인의 행동, 동기, 정서, 인지, 사고를 이끄는 원천(Hue, 1988; Markus & Kitayama, 1991, 1994; Triandis, 1989)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애착과 대조하여 표현한다면 문화적 성향이란,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이끄는 ‘문화적작동모델’(cultural work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주의-개인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문화적 성향 역시 애착과 마찬가지로 적응관련 기제로써의 유효한 작용을 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Triandis 등(1985)은 개인주의 성향은 소외감, 아노미, 고독감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Watson과 Morris(2002)는 개인주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무기력, 사회적 고립, 무규범성)간에는 부적상관이, 집단주의자 가치는 적응과 관계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한성열과 이흥표(1995)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학생은 소외감을 높이 지각하며 특히 가족영역에서 소외감이 가장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박경란(2000) 역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개인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며, 소외감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감, 무력감, 사회적 고립감, 자기유리감, 소외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최

영은(1999)은 집단주의 풍토에서 개인주의 성향자는 불안감을 높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문화적 성향은 부모 애착과 구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애착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적응기제로서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나아가 문화적 성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이원화된 틀이 보다 정교화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문화차원으로써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은 초기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이 단일차원의 양극단이다라는 생각에서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으로 보는 입장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여기에 수평적-수직적(horizontal-vertical)차원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하였다(Hui, 1984;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1995). 수평적-수직적 차원은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이다. 동일 집단주의권(혹은 개인주의권)이라고 해도 대인관계에서 서열, 위계성을 바탕으로 수직적 교류를 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평등성을 바탕으로 수평적 교류를 하는 문화가 있다. 수직적이란 내집단을 위해 개인의 의무, 역할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며, 수평적이란 사람들간에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이다(Triandis, 1995). 따라서, 동일한 집단주의 성향자라 하더라도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나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자나에 따라 이들의 사고성향과 행동방식은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틀을 사용하여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이해함에 있어 수평주의-수직주의 차원의 추가는 문화적 성향에 따른 개인차를 연구함에 있어 보다 정교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인용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주의-집단주의를 단일의 축으로 고려하였거나(예, 양범규, 1996; 채정민, 1993; 한성열·이홍표, 1995), 혹은 구별된 두 개의 축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수평적-수직적 차원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져왔다(예, 김은진, 2001; 박경란, 2000; 정

미숙, 2001, 한규석·오점조, 1993). 이희영과 최태진(2004)의 연구 또한 그러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제기한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애착-적응 관계의 연구대상이 보다 세분화되고 적응영역 또한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애착연구의 경우,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으며, 고등학생들의 경우 심리·신체적인 면에서 발달 과도기에 있다는 중요성에서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편에 속한다. 또한 애착이 미치는 영향변인의 경우 학교 적응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안 등과 보다 일반화된 정신건강 관련 영역들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공부에 대한 만족도,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의 저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일탈행동이라는 결과를 낳거나 혹은 역으로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의 원인이 된다. 동시에 이들 학교 적응과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한편으로 적응기체로서의 애착이나 문화적 성향 요인에 대한 시각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문화적 성향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및 이들 두 요인이 고등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모애착의 경우 그 적응기체로서의 역할이 선행연구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어 왔음에 비추어, 애착과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와 문화적 성향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 애착수준과 문화적 성향(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부모애착 수준과 문화적 성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부모애착 수준과 문화적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D, S구에 소재하는 2개의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318명이었다. 이들 2개 학교는 각각 인근의 7~8개 중학교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로써 비교적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최초 표집인원은 336명이었으나, 부모와 함께 동거하지 않거나 부모 모두 결손가정에 속하는 학생 18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1) 학교생활적응 및 정신건강척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발행한 다차원 인성검사(박병관, 2000)의 광범위한 척도 중 일부분을 활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14문항), 학교공부만족도(17문항), 교우관계만족도(20문항)를 하위영역으로 사용하였으며, 정신건강의 경우 스트레스 청정도(10문항), 일탈행동 통제력(21문항), 우울통제력(25문항), 불안조절력(19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 반응으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각 척도의 점수는 원점수를 토대로 한국심리검사소에서 전국 고등학생 대상의 표준화 규준에 기초하여 T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α)는 차례대로 .72, .82, .72, .45, .78, .85, .66이었다.

2) 부모-자녀 애착척도

부모-자녀간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판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상호신뢰(10문항), 의사소통의 질(9문항), 소외감(6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5문항으로 부와 모로 구분될 뿐 문항내용은 동일하였다. 문항형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5 전혀그렇지 않다)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α)는 부 .92, 모 .91이었다.

3)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척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에 의하여 개발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4가지 세분화된 하위척도(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되어 있다. 7단계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하위 성향별로 점수를 산출한 다음, 보다 높은 점수를 지니는 차원에 따라 4유형 중 하나로 구분하였다. 신뢰도 계수(α)는 차례대로 .71, .81, .78, .64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1의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과의 상호관계’ 분석을 위하여, 부와 모에 대한 애착 하위영역 및 전체점수와 수평적·수직적 개

인-집단주의 점수와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각각의 애착점수 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pm$ 1표준편차에 따라,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4개 성향 집단과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2, 3의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와의 애착수준(3) $\times$ 성향(4), 모와의 애착수준(3) $\times$ 성향(4)에 따라 학교적응 및 정신건강 하위영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문제 2, 3에서는 적응과 정신건강 기제로서의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부와 모의 애착 총점이 평균이하인 학생들만을 제한적으로 추출하여, 4개 성향집단에 따라 학교적응과 정신건강 점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아래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적 분석결과들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학교적응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의 부모-자녀 애착 요인과 함께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의 두 변인 모두에 관심을 두긴 하나, 애착요인의 경우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그 영향력이 검토되어 왔음은 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보다 큰 관심사로서의 애착과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 및 이러한 성향의 영향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1. 애착과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

연구문제 1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및 <표 2>와 같다. 먼저 <표 1>은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척도의 하위영역별 점수와 전체점수와 수평·수직×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하위영역별 점수와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1> 애착척도 하위영역별 점수와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 점수와의 상관

	부 애착				모 애착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전체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전체
수평개인	-.03	-.01	-.01	-.02	-.06	-.01	-.02	-.03
수평집단	.34**	.33**	.22**	.34**	.33**	.36**	.21**	.35**
수직개인	.02	.07	.03	.04	.05	.05	.04	.05
수직집단	.44**	.41**	.24**	.42**	.42**	.39**	.24**	.41**

**p<.0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 성향 점수는 부와 모의 애착 척도의 모든 하위 영역과 전체 점수와 .21~.44의 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p<.01). 반면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성향 점수는 절대값 .00 내외의 상관의 크기를 보여 애착수준과는 무관계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부모-자녀간의 애착 정도와 집단주의 성향은 어느 정도 정적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혹은 집단주의 성향일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혹은 애착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비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에 비하여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애착수준과 보다 상관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계속해서 <표 2>는 애착수준을 부모 각각에 대하여 전체 애착점수의 평균 ± 1 표준편차의 기준에 따라 애착수준별 집단을 구분하고 수평적 개인주의자~수직적 집단주의자의 4개 집단에 따라 교차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표 2> 애착수준과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자 교차분석

	부 애착 수준				모 애착 수준			
	상위	중위	하위	전체	상위	중위	하위	전체
수평개인	5 (9.8)	34 (66.7)	12 (23.5)	51 (100.0)	6 (12.8)	28 (59.6)	13 (27.7)	47 (100.0)
수직개인	12 (23.5)	28 (54.9)	11 (21.6)	51 (100.0)	8 (15.4)	36 (69.2)	8 (15.4)	52 (100.0)
수평집단	44 (25.4)	106 (61.3)	23 (13.3)	173 (100.0)	45 (25.7)	113 (64.6)	17 (9.7)	175 (100.0)
수직집단	6 (15.0)	32 (80.0)	2 (5.0)	40 (100.0)	5 (11.4)	37 (84.1)	2 (4.5)	44 (100.0)
전 체	67 (21.3)	200 (63.5)	48 (15.2)	315 (100.0)	64 (20.1)	214 (67.3)	40 (12.6)	318 (100.0)
χ^2	14.77*				20.95**			

* $p<.05$ ** $p<.01$

검증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의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과 부모의 애착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 각각 * $p<.05$ ** $p<.01$). 성향을 기준으로 특징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애착수준별 분포는 수평적 개인주의자(애착 상위집단 부9.8%, 모 12.8% 하위 부25.0%, 모27.7%)와 수직적 개인주의자(상위 부23.5%, 모 15.4% 하위 부21.6%, 모15.4%)의 경우 상위수준의 애착자에 비하여 하위 애착자가 보다 많거나 비율이 유사한 반면, 수평적 집단주의의 성향자의 경우 상위-부25.4%, 모25.7%, 하위-부13.3%, 모9.7%로 나타났으며, 수직적 집단주의의 성향자의 경우 역시 상위-부15.0%, 모11.4%, 하위-부5.0%, 모 4.5%로 나타나 집단주의 성향일수록 부모애착 상위자는 많으며, 하위자는 적어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상관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맥

락을 지니는 것으로 부모의 애착수준과 개인-집단주의 성향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역시 특징적인 현상으로 비록 부모 애착 상위자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긴 하나, 애착 하위자는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자에서 가장 적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 가족주의의 특징과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자들이 보이는 특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되며 논의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 따라 애착 수준(3)×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4)에 의한 학교적응에 관한 하위영역별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하위집단간 평균의 개별 사후 검증한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애착 수준×성향의 학교적응 하위영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부				모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제곱합	df	평균제곱	F
학교 생활 만족	애착수준	4045.52	2	2022.76	2.93	5337.04	2	2668.52	3.92*
	성향	7315.84	3	2438.61	3.54*	3800.96	3	1266.98	1.86
	애착×성향	4550.00	6	758.33	1.10	2677.25	6	446.20	.65
	오차	205297.46	298	688.91		204062.89	300	680.21	
공부 만족	애착수준	6716.60	2	3358.30	3.57*	17059.97	2	8529.98	9.91***
	성향	1949.33	3	649.77	.69	1733.27	3	577.75	.67
	애착×성향	3552.85	6	592.14	.63	5696.83	6	949.47	1.10
	오차	280299.34	298	940.60		258032.66	300	860.10	
교우 관계 만족	애착수준	9029.36	2	4514.68	7.21***	4482.85	2	2241.42	3.58*
	성향	8633.85	3	2877.95	4.59**	4490.22	3	1496.74	2.39
	애착×성향	6552.68	6	1092.11	1.74	4703.78	6	783.96	1.25
	오차	186469.88	298	625.73		187522.44	300	625.07	

*p<.05 **p<.01 ***p<.001

<표 4> 애착수준×성향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 및 사후검증

독립변인	구분	부			모			
		M	SD	Scheffe	M	SD	Scheffe	
학교 생활만 족	성향	수평개인	55.58	29.84	A	55.73	29.89	A
		수직개인	60.86	28.57	AB	60.86	28.57	AB
		수평집단	70.17	25.22	B	70.88	25.16	B
		수직집단	65.00	25.79	AB	62.76	25.84	AB
	애착수준	상위	76.32	23.41	A	79.18	22.04	A
		중위	62.98	27.20	B	63.01	27.17	B
		하위	62.22	28.19	B	61.05	27.85	B
공부 만족	성향	수평개인	53.80	30.51	A	54.97	30.19	A
		수직개인	67.02	31.04	A	65.42	31.47	A
		수평집단	61.39	31.60	A	62.65	31.11	A
		수직집단	59.46	29.98	A	56.93	28.94	A
	애착수준	상위	73.01	28.69	A	76.77	25.60	A
		중위	58.97	31.03	B	60.16	30.35	B
		하위	51.93	31.22	B	42.75	29.35	C
교우 관계만 족	성향	수평개인	49.92	25.74	A	50.78	26.59	A
		수직개인	57.94	28.48	AB	57.98	28.33	AB
		수평집단	64.75	24.18	B	65.55	23.68	B
		수직집단	53.05	27.73	AB	53.62	27.14	AB
	애착수준	상위	68.56	21.11	A	66.63	25.39	A
		중위	59.40	26.53	AB	61.17	25.13	A
		하위	49.50	27.41	B	47.75	27.43	B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와의 애착수준 요인은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인 학교생활만족, 공부만족, 교우관계만족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여주었다. <표 4>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부와 모에 대하여 애착수준이 상위인 집단은 학교적응의 하위 3개 영역 모두에서 중위 혹은 하위수준의 애착집단보다 체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학교적응력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향 요인의 경우, 먼저 부에 대한 애착수준과의 이원변량분석에서는 학교생활만족과 교우관계만족에서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에 대한 애착수준과의 이원변량분석에서는 성향요인의 주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Scheffe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부와 모의 애착 모두와 관련하여 특정 성향에 따른 집단간에는 학교생활만족, 교우만족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에 비하여 학교생활만족(수평집단 $M=부70.17$, 모70.88, 수평개인 $M=부55.58$, 모55.73), 교우관계만족(수평집단 $M=부64.75$, 모65.55, 수평개인 $M=부49.92$, 모50.78) 수준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의 경우 공부만족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적인 결과는 공부만족 영역의 경우 비록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니나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가 가장 높은 점수수준($M=부67.02$, 모65.42)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가 대체로 4개 성향의 집단 중에서 가장 성취지향적(Triandis, 1995)이라는 보고와도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연구문제 2의 추가분석으로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평균이하를 보인 학생($N=부156$, 모161)만을 제한적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학교적응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5>를 보면, 교우관계만족 영역에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M=부62.03$, 모61.24)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M=부43.55$, 모43.82)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유사한 정도로 낮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생활만족 영역의 경우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역시 동일한 경향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부만족 영역 역시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이고 있음은 앞선 이원변량분석 결과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표 5>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 대상의 성향에 따른 집단간 학교적응
하위영역별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구분		부				모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학교 생활 만족	수평개인	54.55	29.91	.88	A	54.25	29.48	1.39	A
	수직개인	60.82	28.76		A	65.50	27.72		A
	수평집단	63.50	26.09		A	63.41	25.68		A
	수직집단	58.61	23.37		A	56.89	25.37		A
공부 만족	수평개인	52.05	30.33	.26	A	50.05	30.26	.83	A
	수직개인	58.42	34.22		A	62.00	34.69		A
	수평집단	55.11	31.34		A	54.28	32.09		A
	수직집단	58.11	31.78		A	56.21	31.41		A
교우 관계 만족	수평개인	43.55	25.38	4.61**	A	43.82	25.65	3.84*	A
	수직개인	49.07	29.73		AB	56.44	28.91		AB
	수평집단	62.03	24.31		B	61.24	24.38		B
	수직집단	53.11	26.80		AB	52.26	21.19		AB

** $p<.01$

결과적으로 연구문제 2에 따른 분석결과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수준이란 부모의 애착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지닌 문화적 성향 즉,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

2. 애착과 수평주의·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에 따라 애착 수준(3)×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4)

에 의한 학교적응에 관한 하위영역별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하위집단 간 평균의 개별 사후 검증한 결과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6> 애착 수준×성향의 정신건강 하위영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부				모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스트레스 청정	애착수준	9409.50	2	4704.75	7.20**	1422.06	2	711.03	1.05
	성향	2684.82	3	894.94	1.37	1540.82	3	513.60	.76
	애착×성향	5173.82	6	862.30	1.32	4942.08	6	823.68	1.22
	오차	194653.73	298	653.20		202461.92	300	674.87	
일탈 행동 통제	애착수준	3908.10	2	1954.05	3.73*	4599.08	2	2299.54	4.53*
	성향	4341.48	3	1447.16	2.76	4500.44	3	1500.14	2.95
	애착×성향	4886.05	6	814.34	1.55	3725.26	6	620.87	1.22
	오차	156027.26	298	523.58		152248.59	300	507.49	
우울 통제	애착수준	17429.03	2	8714.51	10.15***	12020.75	2	6010.37	6.99**
	성향	3951.03	3	1317.01	1.53	1334.92	3	444.97	.51
	애착×성향	6029.54	6	1004.92	1.17	4509.18	6	751.53	.87
	오차	255626.54	298	857.80		257628.40	300	858.76	
불안 조절	애착수준	4067.14	2	2033.57	2.02	1140.44	2	570.22	.55
	성향	1447.43	3	482.47	.48	3208.76	3	1069.58	1.03
	애착×성향	4067.14	6	2033.57	2.02	1140.44	6	570.22	.55
	오차	5588.51	298	931.41	.92	6969.76	300	1161.62	1.12

*p<.05 **p<.01 ***p<.001

<표 7> 애착수준×성향에 따른 정신건강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 및 사후검증

독립변인	구분	부			모			
		M	SD	Scheffe	M	SD	Scheffe	
스트레스 정정	성향	수평개인	55.12	27.54	A	56.36	27.45	A
		수직개인	64.76	25.87	A	63.48	26.28	A
		수평집단	65.60	25.73	A	65.26	25.61	A
		수직집단	62.87	25.11	A	61.41	26.30	A
	애착수준	상위	67.30	25.47	A	64.73	26.80	A
		중위	64.94	25.09	A	64.24	25.36	A
		하위	51.97	28.52	B	54.87	28.38	A
일탈 통제	성향	수평개인	56.76	24.88	A	56.78	24.73	A
		수직개인	62.70	23.94	AB	62.94	24.14	AB
		수평집단	68.54	21.86	B	69.19	21.25	B
		수직집단	66.46	26.42	AB	66.41	25.24	AB
	애착수준	상위	70.58	20.36	A	69.90	21.64	A
		중위	66.25	21.96	A	67.08	21.43	A
		하위	55.10	30.60	B	54.17	30.11	B
우울 통제	성향	수평개인	56.48	32.48	A	56.73	32.58	A
		수직개인	58.98	33.60	A	57.76	33.16	A
		수평집단	66.39	27.38	A	66.90	27.24	A
		수직집단	58.61	33.23	A	56.86	32.70	A
	애착수준	상위	75.38	24.96	A	74.81	25.47	A
		중위	61.12	30.09	B	61.23	29.99	B
		하위	51.50	31.87	B	50.85	31.53	B
불안 조절	성향	수평개인	51.76	29.42	A	52.23	29.52	A
		수직개인	49.16	33.79	A	46.02	34.09	A
		수평집단	58.12	32.28	A	58.02	32.24	A
		수직집단	53.41	29.83	A	50.20	31.98	A
	애착수준	상위	59.55	33.77	A	53.24	34.62	A
		중위	55.95	30.86	AB	55.35	31.79	A
		하위	45.29	31.82	B	49.35	31.72	A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와의 애착수준 요인은 정신건강의 하위 4 영역중 불안조절 영역을 제외한 스트레스정정, 일탈행동통제, 우울통제의 3개 변인에서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여주었다. <표 7>의 집단별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부와의 애착수준이 상위인 집단은 4개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정신건강 점수가 높았으며, 모와의 애착수준이 상위인 집단은 일탈행

동통제와 우울통제에서 중위 혹은 하위수준의 애착집단보다 체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청정이나 불안조절 영역의 경우 적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애착이 상위인 집단이 역시 점수수준이 높았음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정도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 요인과는 달리 성향 요인의 경우, <표 6>의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4개 하위영역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표 8>의 사후검증 비교에서 일탈행동통제 영역에서만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M=부68.54, 모69.19)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M=부56.76, 모56.78)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표 7>의 결과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있음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는 정신건강의 하위 4개 영역 모두에서 타 성향의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는 불안조절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선 학교적응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 다른 특징적인 결과는 불안조절의 경우 비록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니나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가 가장 낮은 점수수준(M=부49.16, 모46.02)을 보이고 있다는 것 등이다. 결과적으로, 성향 요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정신건강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8>은 연구문제 3의 추가분석으로써,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평균이하를 보인 학생(N=부156, 모161)만을 제한적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8>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 대상의 성향에 따른 집단간 정신건강
하위영역별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구분		부				모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스트레스 칭정	수평개인	46.82	27.56	2.94*	A	46.91	26.77	5.60**	A
	수직개인	58.03	26.41		AB	61.55	24.21		AB
	수평집단	62.98	26.27		B	67.32	23.86		B
	수직집단	60.83	27.03		AB	64.57	23.16		AB
일탈 행동 통제	수평개인	55.11	26.02	1.48	A	56.20	26.43	1.40	A
	수직개인	57.89	26.16		A	62.38	23.65		A
	수평집단	65.51	24.53		A	65.93	24.73		A
	수직집단	61.11	30.58		A	67.57	26.19		A
우울 통제	수평개인	50.58	31.46	1.80	A	48.77	29.29	1.65	A
	수직개인	51.89	35.47		A	54.23	33.62		A
	수평집단	60.34	27.92		A	59.47	28.59		A
	수직집단	44.38	33.41		A	45.47	31.24		A
불안 조절	수평개인	45.76	29.51	3.81*	AB	45.88	28.52	4.10**	AB
	수직개인	40.53	34.86		A	39.88	33.73		A
	수평집단	61.05	29.86		B	60.21	29.97		B
	수직집단	53.94	33.28		AB	48.31	29.87		AB

*p<.05 **p<.01

<표 8>을 보면,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는 스트레스칭정 점수(M=부 62.98, 모67.32)에서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M=부46.82, 모46.91)보다, 그리고 불안조절 점수(M= 부61.05, 모60.21)에서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M=부40.53, 모39.88)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평적 집단주의자의 경우 일탈행동통제나 우울통제 영역에서도 비록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은 앞선 결과들과도 유사한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유사한 정도로 낮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문제 3에 따른 분석결과는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이란 부모의 애착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지닌 문

화적 성향 즉,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IV.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제로 부모-자녀간의 애착 요인과 학생이 지닌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 요인을 설정하고 이들 두 변인과의 상호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적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한편 각 결과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 따른 부모와의 애착수준과 학생들의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성향자에 비하여 애착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비율의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처럼, 집단주의 성향이란 그 속성자체가 유대감, 상호의존성,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Hofstede, 1991; Hue, 1988; Triandis, 1989)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애착수준과의 긍정적 관계를 낳은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Smith 등 (1999)이 대인간 애착과는 구별되는 ‘집단애착’(attachment to group)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애착이란 개인이 집단에 대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즉, 집단주의 성향이란 일종의 ‘내집단에 대한 애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애착은 수평적 집단주의뿐만 아니라 수직적 집단주의 점수와도 상관이 높았는데, 이는 수직적 집단주의라는 것이 우리사회에서는 일면 바람직한 특성

으로 여겨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동등성과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고, 수직적 집단주의는 불평등성과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Triands, 1995). 결과적으로 수직적 집단주의가 갖는 위계질서, 연장자에 대한 존경 등의 인식 성향이 긍정적으로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라 연구문제 1의 분석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성향별 비율은 주목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자들(예, 양범규, 1996; 한규석·신수진, 1999)은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대규모 표집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46.0%)로 가장 우세하다고 파악하며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적어도 본 연구대상이었던 고등학생에서는)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54.92%로 나타나 여전히 집단주의 성향이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후속연구들에 의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에 따른 애착과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애착수준 및 성향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한 바 있는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결과와 다르지 않다. 이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애착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만족, 공부만족, 교우관계만족의 모든 영역에서 애착수준이 낮은 학생에 비하여 높은 적응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 혹은 모와의 애착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내적실행모델이나 적응기제로서의 역할에 관한 한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간 차이 분석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적어도 3가지의 뚜렷한 특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는 학교생활만족, 교우관계만족 영역에서 4집단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 집단에 비하여서는 학교생활만족, 교우관계만족 영역의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둘째,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는 학교적응의 3개 하위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공부만족에서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와 관련시켜 볼 만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결과들과의 비교검토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적응수준의 차이는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자의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수평적 집단주의자의 주요 특성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며 사람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Triandis, 1995).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이라는 변인을 학교의 분위기 및 교사와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그리고 교우관계만족은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조작적으로 사용한 용어임에 비추어 본다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는 이러한 수평적 집단주의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학교적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수평적 개인주의자의 경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강조, 독립성, 자율성, 다른 사람들과의 대등한 관계, 집단에 대한 정서적 거리(한규석·이수진, 1999; Triandis, 1995) 등이 특징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학급이라는 집단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 아직까지는 수평적이라기 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로 남아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의 경우 공부만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 역시 수직적 개인주의자의 성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Triand(1995), Triandis와 Gelfand(1998)에 의하면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의 특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 수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성취지향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이 학교 공부의 성취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이란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다르며, 적응수준은 적응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평 개인주의 성향자의 경우, 학교생활만족, 공부만족, 교우관계만족 영역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학교생활 적응영역 혹은 정신건강 영역에 포함시켰다면 어떠한 결과가 산출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문화적 성향에 따른 4유형 분류에서 어느 유형이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식의 가치가 개입된 사고가 옳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와 소외를 높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박경란, 2000), 그리고 우리사회에서는 수평-개인주의적 가치에 대한 혐오경향이 높다는 보고(한규석, 신수진, 1999)에서 이와 같은 적응상의 차이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에 따른 애착과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애착의 영향은 학교적응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 청정도, 일탈행동통제력, 우울통제력, 불안조절력 모두에서 하위 집단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애착요인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기제로서 충분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수평·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간 차이 분석결과 학교적응 영역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첫째,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는 정신건강의 하위 4개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둘째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는 불안조절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그리고 셋째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는 불안조절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의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개인주의자-집단주의자 연구(수평·수직 차원을 첨가한 연구가 아니라)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관련

하여 개인주의자는 집단보다 자기 자신을 일차적인 정서적 지지의 자원으로 삼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데 비하여, 집단주의자는 규준집단과 일차집단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삶의 제약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한성열 · 이홍표, 1995).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특성이 단순히 개인주의자이거나 집단주의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기 보다 구체적으로 ‘수평적 개인주의자’, ‘수평적 집단주의자’의 특성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수평적 집단주의자가 일탈행동이나 우울 통제력이 높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영은(1999)은 집단주의 풍토에서 개인주의자의 경우 불안이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였으며, 한성열과 이홍표(1995)는 개인주의 성향자가 소외감, 고립감, 무기력감, 무의미성이 높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Watson과 Morris(2002) 또한 사회적 기능(무기력, 사회적 고립, 무규범성)이 개인주의자 가치와 부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고등학생들의 수평적 · 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이란 애착기제와는 독립적인 또 하나의 중요한 학교적응 및 정신건강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특히 연구문제 2, 3의 추가적인 분석으로써 부모의 애착수준이 50%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한 결과에서도 보충될 수 있다. 즉, 애착이 학교적응 및 정신건강의 기제로 그 영향력이 충분함을 인정한다고 할 때, 비록 애착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이 집단주의 성향 특히,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지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학교적응 수준이나 정신건강 수준이 높음을 보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비록 부모애착과 수평적 · 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하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애착요인이 성향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은 성향요인이 애착수준을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본

적으로 개인수준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란, 한 사회의 문화수준에서의 문화성향을 분류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며, 따라서 문화적 성향이란 한 사회의 장구한 역사와, 언어, 전통 사상 등에서 비롯한 것이다. 학자들은 우리의 집단주의 성향의 전통을 유교적 사상에서 그 토대를 찾는 경향이 있다(김성태, 1987; 최상진, 1993). 서양에 비하여 보다 밀착되어 있는 부모 자녀간의 애착 또한 유교적 전통에 근거를 찾고 있음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부모 자녀간 애착은 집단주의 성향과 근원적인 공유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련변인 모두는 성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논쟁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적응에서(예, 남학생이 적응력이 높다-배기명, 1983; 이근세, 1996, 여학생이 적응력이 더 높다-배나현, 2003; 정유진, 2000; 조종현, 1984; 주현정, 2001,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백종흠, 1984; 유상철, 1982), 부모 자녀 애착관계에서(성차가 없다-Raja et. al., 1992, 성별에 따라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지수경, 2001), 그리고 개인-집단주의 성향에서(남성들이 보다 집단주의적이다-임희섭, 1980; 최영은, 1999, 여성들이 보다 집단주의적이다-Cross & Madson, 1997; Kashima et. al., 1995; Madson & Trafimow, 2001, 개인주의-집단주의 모두에서 여성들이 높다-Ho & Chiu, 1994) 선행연구는 성차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분석절차의 단순성 및 연구결과의 명료성을 위하여 연구대상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적 포괄성을 확보하는 한편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차연구를 수행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사회를 일컬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학교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의 개인주의는 자율성, 독립성, 독특성이라는 긍정적 특성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비

떨어지고 왜곡된 개인주의를 가리키는 당연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집단주의 성향이 때로는 과도한 집단의식으로 인한 부정 부패나 연고주의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변지은 외, 1997; 서동효, 2001), 경우에 따라 사회적 관계 혹은 정서적 측면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긍정적 역할을 가져오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근래에 학교현장에서 관찰되는 많은 행동적·정서적인 병리현상들 -예를 들면, 집단괴롭힘, 교사와의 갈등, 학교폭력-을 분석하는데 문화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괴롭힘, 교사와의 갈등,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대인관계 장면, 사회적 장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틀이 기본적으로 집단에 대한 일체감, 유대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이해·지도·상담장면에서 수평적·수직적 개인-집단주의 성향 척도를 사용하여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편으로 본 연구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의 적용면을 확장시켜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차 이해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은 비단 애착이나 적응영역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의 사결정 유형(최태진, 2004) 등과도 관련하여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논점에는 기본적으로 보편심리학을 추구하는 서양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이해방식에서 벗어나 토착심리학인 접근 속에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진(2000).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1).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또래동조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태(198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인문논집, 32,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 박경란(2000). 우리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소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관(2000). 다차원 인성검사.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박영신·김의철(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변지은·이수정·윤소연·김근영·손승영·오경자(1997).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107-122.
- 배기명(1983).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나현(2003). 가족관계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종흠(198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동호(2001). 집단에 대한 애착 및 문화적 자기관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범규(1996). 고등학교 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개인주의 가치지향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상철(1982).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고교생들의 느낌의 차원에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근세(1996). 고등학생의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92). 청소년기 모-자녀간의 애착이 자녀의 사회성과 학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최태진(2004). 애착유형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상담학연구, 5(1), 79-94.
- 임희섭(1980).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1), 88-106.
- 정미숙(2001). 여고생의 개인주의 가치성향과 자아개념의 상관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1995).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1999).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생활 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종현(1984). 고교생의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2001).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정민(1993). 내·외집단에서의 자기주장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

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최영은(1999). 집단주의 풍토에서 개인주의 성향과 불안감, 소외감과의 관계연구: 전주, 익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정욱(2000).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애착 안정성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태진(2004). 상호의존형 진로 의사결정 유형 척도의 개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 상담학연구, 5(3), 647-666.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93-310.

한규석·오점조(1993). 아동의 교류양상에 대한 분석: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85-197.

한성열·이홍표(199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 113-129.

허나원(2001). 아동의 우울과 애착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Cha, Jae-ho. (1990). Aspects of collectivism in Korea.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ross, S. E., & Mado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England: McGraw-Hill. [차재호 · 나은영 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Ho, D. Y. F., & Chiu, C. (1994). Component ideas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social organization: An application in the study of Chinese culture.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pp. 137-156). Thousand Oaks, CA: Sage.
- Hui,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on Personality*, 22, 17-36.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Kalsner, L., & Pistole, M. C. (2003). College adjustment in a multiethnic sample: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thnic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 92-109.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 Gelfand, M. J.,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25-937.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9.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2).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to the adjustment of first-year college wo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431-438.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psley, D., & Edgerton, J. (2002). Separation-individualiz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484-492.
- Madson, L., & Trafimow, D. (2001). Gender comparisons in the private, collective, and allocentric selv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4), 551-55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Palladino, D. E.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8-255.

- Quintana, S. M., & Lapsley, D. K. (1987). Adolescent attachment and ego identity: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to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2, 393-409.
- Rice, K. G., & Cummins, P. N. (1996). Late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50-57.
- Rice, K. G., Cunningham, T. J.,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89-101.
- Rice, K. G., & Whaley, T. J. (1994).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within-semester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324-330.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Schwartz, S. H. (1994).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pp. 85-119). Thousand Oaks, CA: Sage.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mith, E. R., Murphy, J. & Coats, S. (1999). attachment to groups :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94-110.

- Torquati, J. C., & Vazsonyi, (1999).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for affect, appraisals, and coping of late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Youth & adolescent*, 5, 545-562.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s*, 96, 506-529.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4, 118-129.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Watson, P. J., & Morris, R. J. (2002).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Values: Hypotheses suggested by Alexis de Tocquevill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3), 263-271.

ABSTRACT

Adjustment to School and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Horizontal · Vertical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Its Influence

Choi, Tae-Jin^{*}

Parent-child attachment functions as major mechanism for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and adults. This is based upon internal working model which is a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schema that was forme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fter early childhood. A number of studies have supported the idea. In this study, focusing on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along with attachment factor as an 'internal working model', cultural orientation factor as a 'cultural working model'(horizontal · vertical individualism-collectivism) was suggested as another major mechanism for explaining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orientation and attachment and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se two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and mental

* Pusan National University

health. For achieving research goals of this study, attachment to parent inventory, horizontal · vertical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schoo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300 high school student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horizontal · vertical collectivism. Horizontal and vertical collectivists showed higher level of attachment than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ts. Second, schoo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ttachment and horizontal · vertical individualism-collectivism. Generally horizontal collectivist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schoo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previous studies. Finall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with limitations.

Key Words: school adjustment, mental health, parental attachment, individualism-collectivism

투고일 : 10월 28일, 심사일 : 12월 14일, 심사완료일 : 12월 23일